



'김환기 미술관' 조감도



'골고다 기독교미술관' 조감도

'예술의 섬' 꿈꾸는 신안... 미술관만 있고 작품은 없다

14개 읍·면에 권역별 미술관 추진

예산 없고 작품 확보 안돼

전문인력 없어 부실운영 우려도

2015년 개관 '김환기 미술관'

구체적 컨셉도 잡지 못해

신안이 '예술의 섬' 일본 나오키마를 꿈꾸며 권역별 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착 콘텐츠, 즉 미술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미술관은 있는데 보여줄 작품이 없어 자칫 겉데기만 있는 미술 섬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안 출신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김환기(1913~1974) 화백 미술관의 경우 작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째 미술관 건립 사업의 방향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권역별 미술관은? = 지난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신안 14개 읍·면마다 미술관을 조성하는 '권역별 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1차 목표로 모두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중도, 안좌도, 압해도, 임자도, 자은도 등 5개 읍·면에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압해읍 '저녁노을미술관'은 8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모두 24억원이 예산이 투입된 저녁노을미술관은 지상 2층 규모(부지 2만

9102㎡, 연면적 1247㎡)로 한국화 작품을 위주로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수화 김환기 화백의 고향인 안좌면에는 모두 13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부지 1만6817㎡, 연면적 4585㎡)의 '김환기미술관'이 오는 2015년까지 건립된다. 신안이 안좌도에 추진 중인 안좌매화공원 등과 연계해 안좌도 전체를 문화섬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중도에는 성화(聖畵)를 위주로 전시하는 '골고다기독교미술관'이 내년 문을 연다.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부지 2900㎡, 연면적 990㎡)의 미술관을 건립해 1층에는 기독교 관련 미술품을 2층에는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 한다는 구상이다. 신안은 골고다기독교미술관에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스토리를 입힐 예정이다.

우봉(又峯) 조희룡 선생의 유배지였던 임자도에는 모두 48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기념관과 미술관 성격의 '조희룡기념관'

을, 자은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사진 작품 위주의 '사진의 섬 갤러리'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공모를 준비 중이다.

◇김환기 화백 유화 달랑 2점 = 신안이 당초 김환기 화백 탄생 100주년인 올해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 '김환기미술관'은 예산과 작품 확보 문제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130억원에 이르는 예산도 겨우 4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신안이 확보하고 있는 작품은 김환기 화백이 20대 때 그린 초기 작 유화 2점, 드로잉 10점, 판화 12점(사후 판화)과 도록, 의복, 화구 등이 전부다. 신안은 작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미술관 컨셉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전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변경해 체험 위주의 미술관으로 꾸민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최근 조감도가 나온 '골고다기독교미술관'의 경우는 아직까지 기독교 관련 미술품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국내 유명 화가가 수

년 전 자신의 작품 100여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신안은 부랴부랴 기독교단체 등에 협조 요청 서한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8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저녁노을 미술관도 작품 다양성이 절대 부족하다. 내세울 만한 작품은 남농 허건 선생의 작품 2점, 청남 오재봉 선생의 작품 3점이 전부다.

조희룡기념관은 유품과 작품을 확보하지 못해 어떤 콘텐츠를 채울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는 등 권역별 미술관 사업이 결국 '이름값'을 못하는 미술관과 기념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운영과 미술품 확보 계획 = 신안은 이 많은 미술관과 기념관을 운영할 만한 전문 인력도 없다. 이 때문에 김환기미술관은 직접 운영하고 다른 미술관과 기념관은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미술관은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다양한 기획전시와 체험행사 등 이벤트로 관람객을

끌어 모아야 하지만 위탁운영될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이 같은 운영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신안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부족한 미술품은 추가로 기증받거나 복제품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제품을 전시하는 것 자체도 미술관으로서의 안타까운 일일 뿐더러 고가의 미술품을 기증받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미술품을 기증한 단체나 인물이 미술관 운영을 도맡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군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몇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기증 의사를 밝혀왔다"며 "미술 작품도 중요하지만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입혀 미술관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보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로고송 'Action' 공개

한류스타 보아(BOA)가 부르는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로고송 'Action'이 지난 31일 공개됐다.

이날 지니, 멜론, 네이버 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Action'은 보아와 히트곡 제조기 유영진이 공동 작업했다.

일렉트로닉 댄스 장르인 'Action'은 밝고 쉬운 멜로디에 테크니컬 한 비트감이 더해졌다. 도입부에 들리는 사물놀이 소리와 함께 'fashion' 'passion' 'action' 등 반복적인 가사들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선사한다.

특히 자신의 색깔을 찾기 위해 열정을 담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표현한 가사들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이날 오후 음원이 공개되자 멜론 등 각종 음악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이 "로고송 좋아요" "퀵리터 대박" "재능 기부라 더욱 의미 있는 곡이네요" 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계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닌 대중친화적인 성격과 보아의 이미지가 잘 어울려 로고송 제작을 요청했다"며 "오랫동안 가요계 정상을 지켜온 보아가 공익적인 국제문화행사에 '재능 기부'이자 '문화 기부'를 해서 더욱 의미 있는 로고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음과 모음이 오방색을 만나

노영선 '한글 이야기'전 10일까지 갤러리 아크



'Hangul story'

'한글이 선이 되고, 소리가 색이 된다.'

갤러리 아크(광주시 서구 풍암동)는 1일부터 10일까지 서양화가 노영선씨를 초대해 '한글이야기'전을 연다.

노씨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우리 전통색채인 오방색을 이용해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디자인적 요소가 강한 비구상 작품들이다. 작품 속에서 자음과 모음은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된다.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토대로 글자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재구성해 새로운 이미지로 시각화했기 때문이다.

"글자의 원래 의미와 마음속 연원을 깊게 생각하면서 창작하고 있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남원 출신으로 조선대 미대와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노씨는 독일과 서울 등에서 10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파운틴 아트페어(미국 뉴욕), 콘스트리트12 아트페어 비엔날레(이탈리아), 싱가포르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671-12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비빔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